이안의 Media In Buddha ⑭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한줄요약
부산현대미술관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전시, 새로운 상영으로서의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기획전이 바로 그것이다.

미술관서 만난 영화, 생명 가치 일깨우다

절에 가서 동이 트기 한참 전 도량석에 함께 하거나, 저물녘 사물법고 의식에 자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울려 퍼지는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기원이 되는 아름답고 절절한 공감의 순간이 주는 파동을. 아침 예불을 하기 전에 천지 만물을 깨우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신새벽에 목탁을 치면서 사찰 주위를 도는 도량석이나, 사람 뿐 아니라 하늘에 사는 날짐승과 뭍에 사는 짐승까지 두루 아울러 모든 축생이 고통을 벗어나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목어와 운판, 법고와 범종을 울리는 정성은 어쩌다 보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보는 이가 있는 없는 절에서 날마다 하루를 열고 닫는 지극한 마음을 담아 나누는 일상적 의례다.

이토록 지극한 마음으로 뭇생명을 보살펴도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지금도 시시각각 병들고, 비명을 지르며,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어쩌면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등등 숱한 질병들이나 지난 3년 간 전 세계를 혹독하게 휩쓴 코로나19도 위기에 다다른 행성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예술은 무엇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법고 타고식에 가듯 상영관에 가고 도량석을 돌 듯 전시관을 돌 수 있을까? 미술관에서 깨달음을 얻고, 영화를 보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미술관은 영화관보다 어렵고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다. 아무래도 오랜 문화의 역사에서 미술관이란 두고두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른바 '작품'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밝은 애호가를 위한 예술 공간이라는 통념이 있으니까. 이에 비해 영화관은 처음부터 대중을 위한 '상품으로서의 오락거리' 동영상을 상영하는 상업 공간으로 익숙하기도 하고.

대개 사람들이 미술관을 가는 첫 경우로는 관광을 가서 꼭 들러야 하는 추천 명소여서 라거나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게 가게 된 미술관에서 교과서에서 보던 유명한 작가의 '진품' 또는 '원작'을 보게 되면 신기해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미술관에 익숙해지고 관심이 생기면 기획전이나 초청전을 따로 찾아보게도 되고, 또는 미술관 건물 자체가 근사해서 조용한 만남의 장소로나 결혼사진 야외 촬영장소로 찾는 사람들도 꽤 있고. 자주 드나들다 보면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대의 미술관은 전시공간이 잘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일찍이 많은 현대 작가들은 새로운 미디어인 영상을 자신의 창작 매체로 '비디오 아트'를 미술관을 통해 선보여 왔고, 자신의 창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전시 공간 한쪽에서 소개하는 것도 흔한 경향이 돼 왔으니 미술관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다.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가운데 현대적 미술의 상징처럼 우뚝하게 쌓여있는 모니터 기둥은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니, 현대미술관에서 영상을 보는 것도 익숙하다.



황윤 감독의 〈수라〉의 한 장면. 부산현대미술관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기획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도 미술관 자체가 영화를 위한 공간이 되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작품 감상은 미술관에서'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영화관에서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는 걸까?

미술관을 찾게 되는 까닭은 세상에 이토록 많은 창작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상상하고, 구현해서 우리 앞에 펼쳐 보였구나, 새록새록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선에는 공감을, 저런 표현에는 충격을, 또 어떤 시도에는 자극을 받는 경험을 따라 걷다 서다하는 동안 차오르는 감동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업 영화관에서는 그런 감동을 찾기 어렵다. 스크린이 여남은 개씩 되는 큰 극장이래도 상영작은 거기서 거기, 죄다 블록버스터에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비상업적 영화는 드문드문 퐁당퐁당 찾아보기도 어렵게 흩어져 있다. 그나마 예술영화전용관이 있는 지역은 일삼아 찾아가기라도 하지, 동네방네 생겨나는 영화관은 거의 다 프랜차이즈 멀티플렉스 차지다.

그러니 색다른 영화를 찾는 관객들은 영화제를 찾는다. 영화제에서는 각 영화제 성격에 따라 저마다 특별하게 골라낸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 영화제라는 건 딱 정해진 기간 동안 폭풍처럼 영화를 쏟아 붓듯 상영하는 굵고 짧은 행사다보니 보고 싶은 영화를 다 보기도 어렵고, 그 시기에 짬을 낼 수 없으면 남의 잔치 장하더라는 풍문으로나 지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현대미술관은 이런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전시, 새로운 상영으로서의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있다. 낙동강 어귀, 강과 바다가 만나 새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 섬이라는 을숙도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수많은 생물들이 깃들어 살아 숨 쉬는 생태섬으로, 자전거길이나 도보 여행길로 잘 알려진 철새들의 낙원이다.

부산현대미술관, 경계 넘은 전시회
전시와 영화, 미디어가 상호연관돼
미술관서 영화 보며 생명사상 확인
영화적 도량석이자 미술적 법고의식

이 생태섬 가운데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바로 이 낙동강에서부터 세계를 잇는 재세계화 프로젝트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 중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기획전이 바로 그 시작이다. 올해부터 한 해 걸러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열릴 비엔날레 개념의 '부산모카 시네미디어'는 주인공이 영화다. 다양한 영화 관련 기관과 행사가 있는 영화 도시 부산에서 미술관이 시각 매체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구분이 지어낸 프레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전시로 미술관을 '생태친화적 영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영화계와 함께 준비한 이 전시는 영화관과도 다르고 영화제와도 다른 미술관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소개하고 관객을 맞는다.

현대미술이 영화와 맺는 관계를 확장시키는 이번 시네미디어 프로그램은 영상설치작업과 영화 사이에 경계 없는 관람지대를 마련했다. 이 영상지대에서는 관람객들 저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한 작품 앞에 오래오래 머물며 뜯어 볼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작품은 보고 또 보며 마음에 담을 수도 있고, 상영 시간이 정해진 작품은 때맞춰 찾아볼 수도 있다. 따로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와 관련 전문가를 만나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영화를 보는 다양한 방식 안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은 전시의 제목인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에 담겨 있다. 미술관은 고립된 '섬'과 '행성'을 생태적 상상력으로 연결하고, 인류세와 기후정의에 대한 요청에 영화와 미디어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을숙도라는 섬은 지구라는 행성을 코로나로 단절과 거리두기를 겪은 이 세상을 새로 잇는 지대가 바로 미술관이 되는 것이다.

이 전시를 기획한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영화감독이자 평론가이며, 영화제 프로그래머, 집행위원장, 전시예술가 등 전방위로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예술가답게 이 새로운 개념을 물리적 지대로 구현해냈다. 이 시네미디어 지대로서의 미술관은 4월부터 8월까지 기획전이 지속되는 동안 에코 시네마, 공상과학으로서의 'Science Fiction'과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를 아우르는 SF영화, 에코 힐링 게임, 설치, 포럼, 토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을숙도-세계-행성을 잇고 생태적 위기에 처한 세상을 위한 영화적 기원을 나눌 것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을 품은 을숙도는 '생성의 장소'이자 '재세계화(Re-Worlding)의 장소'로서 싹 뜨고 꽃 피는 봄부터 울울창창할 여름까지 인류의 희망을 영사하는 꿈의 지대가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김소영 교수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감수성과 감도가 달라졌다고 느낀다. 미술관에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체험 방식을 선사하고 싶었다. 이곳이 바로 포스트콘택트존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 생태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등의 주제를 아우르는 설치작품, 영화, VR작품 등을 선보이며, 영화감독 78인의 작품 100여 편을 상영하는데 규모로나 범위로나 작품구성으로나 생태적 재생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간절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낙동강 어귀에서 물줄기가 너르게 퍼져 습지로 스미고 바다로 이어지듯 이번 전시의 흐름이 영화의 기후로부터 시작해 문명의 기후에 대한 공감과 염려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 '인류세(人類世)'라고 한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지질 연대로 우리가 사는 행성의 역사 안에 포함되기에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니, 그런 시기를 구분하자며 내놓은 개념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의 변화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위기는 지금도 시시각각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독성으로 땅과 바다에 쌓이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류가 번성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생물 종이 멸종되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말로 세계화 시대를 맞은 이후 이런 인류의 재앙은 어디서 시작하든 전세계적인 재앙이 되기에 '행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생태적 존재로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기후정의와 공존에 대한 다층적 시각을 나눌 시네미디어 전시장은 시간대별로 다양한 작품을 상영하는 '극장 을숙'을 포함해 자유로이 오가며 원하는 작품을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는 '시네미디어 라운지' '극장 행성' '시네미디어 존'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장 을숙에서는 매일 2, 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주말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뭇생명에 대한 예술적 애도, 희망과 재생을 기원하는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우주로 뻗어가는 행성차원의 간절함에 공명하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 감독의 〈두 개의 지평선〉과 김소영 감독의 〈SFdrome : 주세죽〉을 함께 본다는 것, 황윤 감독의 〈수라〉를 보며 새만금 간척지에서 10년 넘게 바닷물이 다시 들기를 기다리며 생존을 이어가는 흰발 농게를 찾고,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도요새의 눈물겹게 아름다운 날개짓을 볼 수 있다는 것, 미술관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찾기 위해 스크린 앞에 앉는 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적 도량석, 미술적 사물법고 의식이 아닐까?

〈영화평론가〉



